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 바로의 궁에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요술로 뱀이 되게 하였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강하다'라는 표현이 무려 1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하자크"의 원래 의미는 '견고하다',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굳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완강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카베드"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 '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교만하기 때문에 선악 간의 분별이 되지 않는 둔한 마음이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다는 것을 바로의 말과 행동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눈 여겨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예를 들면 7:3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과연 그 책임을 바로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대편 질문으로 접근을 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는 원래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바로를 갑자기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인가?'하는 질문입니다. '바로라는 사람은 원래는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를 완악하고 완강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는가?'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이지 원래 바로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진술입니다. 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선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악하게 바꾸어 놓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악한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한 계속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강제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시지 않으실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고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유기"와 관련된 주제는 다른 성경공부 시간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경에서 이 주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몇 구절만 찾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81:12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또한 에스겔 3:27 말씀입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예레미야 18:12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마음을 완악한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순종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로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가 결코 말뿐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신하들 가운데에도 바로에게 모세의 말을 따르라고 호소하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출10:7). 그러나 바로는 계속 완악하게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기만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8:8).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호소하며 "자신이 악하다"고도 말하였습니다(9:27).

그러나 끝내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과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말씀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는데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애굽 사람이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 내실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어호와 인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7:5). 또한 바로도 알게 될 것입니다. "네가(바로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7:17).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내리시지 않고 '구별'하실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8:22)."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0:2)."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 분만이 영광 받으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손에 책으로 들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바로와 같은 모습이라면 지금 당장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분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애굽 사람에게 내려진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미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8:23의 말씀에는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이라는 말은 '떼어놓다', '갈라놓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페두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함으로 더욱 깊은 의미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8:23에서 '구별'로 번역된 "페두트"라는 단어는 '몸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 "페두트"는 '대신 몸 값을 치르는 것' '속량' '대속'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 마귀의 백성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되시기를 축복합니다.